‘국악 재주꾼’ 성지우 양 고향 해남서 ‘땅끝에서…’ 공연

“퓨전 국악 세계에 알리는 게 꿈”

다양한 국악기를 다루는 성지우(15)양은 요즘 하루 4~5시간씩 연습에 열중이다. 오는 24일(오후 6시 해남문예회관) 고향인 해남에서 ‘땅끝에서 땅끝까지’를 주제로 큰 공연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꾸미는 공연에 찬조 출연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실력을 뽐내는 자리다.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국악공부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수석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있는 지우 양은 ‘국악 재주꾼’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가야금 실력이 수준급이고, 요즘에는 민요도 배우고 있다. 여기다 4개의 북을 한꺼번에 두드리는 모듬북 연주도 일품이다. 욕심이 많은 지우 양은 이번 공연이 끝나면 해금을 배울 예정이며 어릴 때부터 쳐온 피아노 공부도 더 열심히 할 계획이다.

“처음에는 악기 중에 피아노를 먼저 접했는데 가야금을 배우면서 국악기의 매력에 빠져 들었어요. 그중에서도 6학년 때부터 시작한 타악기 연주가 가장 재미있어요. 북을 치고 있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이번 공연에서는 제가 주인공이라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끼가 많았던 지우 양은 초등학교 때는 ‘KBS 전국노래자랑’에 나가 인기상을 받기도 했고 ‘MBC 가요열전’에도 출연했다.

해남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지우 양은 각 분야의 선생님을 찾아 광주로 유학 와 현재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해남에서 부페식당을 운영하는 아빠 성주환(46)씨와 엄마 강미정(44)씨가 2~3일에 한번씩 집에 들러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처음에 음악하는 걸 반대했던 부모님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지우의 실력을 칭찬하는 데다 너무나 열심히 연습하는 지우의 모습에 감동, 결국은 후원자가 되었고, 지우에게 자신감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에 사재를 털어 대형 무대를 마련했다.

가야금 ·민요·모듬북 연주 일품

“앞으로 유명한 국악인이 돼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음악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특히 퓨전국악을 널리 알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음악과 더불어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늘다래예술단(대표 최상진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지휘자)과 함께 무대에 오를 지우 양은 24일 공연에서 25현 가야금 연주, 국악가요 등을 들려주며 6명의 타악주자들과 함께 ‘뉴 비전 21-놀이’, ‘마딧길’ 등의 작품을 선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4개의 북으로 구성된 모듬북을 연주하고 있는 성지우양. 지우 양은 24일 해남문예회관에서 대규모 공연을 열 예정이다.

개막작 ‘서간도’ 등 40여편 상영

29일부터 5일간 7회 광주국제영화제 열려

월드 시네마 베스트·5·18 영화 특별전도

제 7회 광주국제영화제 상영작이 확정됐다.

오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광주 메가박스 6관과 8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문화혁명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중국의 한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18살 시핑, 11살 광토 형제가 베이징에서 온 한 소녀를 동시에 좋아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은 개막작 ‘서간도’(리지샹 감독) 등 총 40여편(장편 17편)이 상영된다.

섹션별 주요 작품을 살펴본다.

▲월드 시네마 베스트

독재자 차우세스쿠를 몰아낸 민중 시위가 일어난 지 16년이 지나 당시를 회상하는 TV 대담 프로에 등장한 인물들을 통해 동유럽의 현실을 유쾌하게 비튼 루마니아 코미디 영화 ‘그때 거기 있었습니까’, 1980~90년대 요코하마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인사 였지만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 한 할머니의 인생과 행방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요코하마 메리’를 만날 수 있다.

또 옛 회사의 동료인 29세의 독신 여자와 전업주부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만화 원작의 ‘다 큰 여자들’, 올해 상영돼 ‘새로운 형식의 공포물’로 관심을 받았던 한국 영화 ‘기담’, 스페인 영화 ‘보르히아’ 등이 상영된다.

▲5·18 영화 특별전

5월 광주를 소재로 삼은 장편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섹션이다.

광주를 처음 다룬 상업영화로 꼽히는 이정국 감독의 ‘부활의 노래’, 한 소녀를 통해 5월의 상처를 들여다본 장선우 감독의 ‘꽃잎’, 5·18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들어왔던 한 남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등이 상영된다.

또 황석영 원작의 ‘오래된 정원’과 최근 종영된 ‘화려한 휴가’도 만날 수 있다.

▲루키노 비스콘티 회고전

이탈리아 영화 변혁에 앞장섰던 루키노 비스콘티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섹션.

나치즘에 의해 부와 권력을 박탈당한 한 일가족의 비극을 통해 역사를 이야기하는 ‘저주받은 자들’, 1800년대 이탈리아 시실리를 무대로 한 시대극으로 버트 랭카스터의 연기가 인상적인 ‘레오파드’, 꿈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알랭 들롱 주연의 ‘로코와 그의 형제들’ 등 모두 6편이 상영된다.

▲애니메이션 특별전

‘다 큰 여자들’

‘보르히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국 출신 다니엘 그리브즈와 시모네 마씨 두 감독의 작품을 집중상영한다.

각종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수상한 ‘플랫 월드’, 술집 주크박스를 소재로 한 ‘록앤롤’ 등 단편 20여편이 상영된다.

티켓 가격 5천원, 프로그램 시간표는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8-99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18 문화센터, ‘신명’ 공연 취소

“작품 내용 다르다” 공연 이틀전에 … 주차장서 공연 강행

광주시 산하 기관인 5·18기념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가 작품 내용이 대관 허가 당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한 예술단체에 대한 공연장 사용 허가를 공연을 불과 이틀 앞두고 취소했다.

문화센터는 오는 23~24일 공연을 열 예정이었던 놀이패 신명이 당초 서민 아파트 임대금 문제 해결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대관 신청을 받았지만 이후 시청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를 다룬 작품으로 변경하는 등 작품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달라 대관 신청을 취소한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센터 관계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공연은 취소할 수 있다는 운영 조례에 따라 취소를 통보했다”며 “이번 조치는 내용이나 소재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신고 당시와 작품 내용이 달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놀이패 신명 관계자는 “창작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를 허위 신고로 보고 대관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청과 관련된 문제여서 공연장 대관 취소까지 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22일 문화센터를 항의방문한 신명은 23일 센터 주차장 등에서 공연을 강행키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심사를 통해 무대 공연작품으로 선정돼 1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한 신명이 사전 승인 없이 대본을 변경하자 21일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했으며, 신명은 보조금 없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직 수학선생님이 그린 수학 만화

박소영씨 ‘콩, 콩, 콩사마…’

전직 수학 교사가 만화로 수학의 원리를 설명했다.

박소영씨가 쓰고 그린 ‘콩, 콩, 콩사마 수학스쿨’(살림어린이)은 대수학자 피타고라스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수학의 역사와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나일강의 잦은 범람으로 매년 정확한 땅의 넓이가 필요했던 이집트인들이 끈으로

삼각형을 만든 뒤 땅을 측정하는 것을 보고 피타고라스는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했다. 수학을 어렵게 느끼는 학생이나 원리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고3 수험생 위한 뮤지컬 ‘죽은 시인의 사회’ 공연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안순일)이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뮤지컬 공연을 마련했다.

대학로에서 활동 중인 배우들이 열연하는 뮤지컬 ‘죽은 시인의 사회’는 로빈 윌리엄스가 등장한 동명의 영화로 잘 알려진 작품. 다음달 7일까지 광주시 남구 봉선동 남구문화예술회관과 5·18기념회관 대동홀에서 공연된다. 11월23일, 26~28일, 12월6~7일 오전 11시30분, 오후 3시 두 차례 공연하며, 관람료는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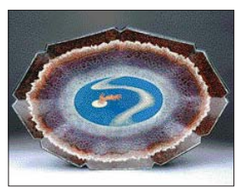
기획과 연출을 맡은 광주 광산중 김철옥 교사는 “변화와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문제해결 능력과 정체성을 갖도록, 그리고 수험생활에 지친 학생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380-4286.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장애의 아픔 예술로 승화

‘茶香 속에…’展 30일까지 의재미술관

신체적인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조규열 작 ‘쉼’

의재미술관이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지원기금으로 마련한 ‘다향(茶香) 속에 핀 꿈’전이 30일까지 열린다. 참여작가는 고경주(금속공예), 김경진·정덕영(도자공예), 양준형·조규열(나전칠기), 이귀원· 정종구(목공예), 강성미(구슬공예), 이정희(전통자수), 윤명· 이임숙 · 허금임(한지공예)씨 등 12명.

이들은 선·후천적인 장애를 딛고 자신들만의 예술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장인들로 이번 전시에서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도자기, 나전칠기, 전통자수 등 공예작품 80여점을 전시한다. 문의 062-222-304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